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육계산업 활성화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행보에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 걸쳐 135명의 육계 자조금 대의원이 선출되면서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의 행보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12월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정족수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총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남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자조금 사업이 대의원 총회가 무산된지 4개월만인 지난 4월 20일 총회를 마치면서 자조금 사업이 활기를 찾게 되었다. 자조금을 거출키로 하고 거출금을 수당 5원으로 정하였으며, 자조금 관리위원회 재투표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위촉을 끝마치는 등 자조금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선출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빌미가 되면서 육계 의무 자조금 사업이 다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도별 축산업자 수 및 육계사육수수 등을 감안하여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 위촉된 관리위원들은 정당성을 얻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주관단체인 한국계육협회와 농협중앙회는 관리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의무자조금 추진에 한발 뒤로 물러섰고 이홍재 의장을 비롯한 대의원회에서는 정부와 양 단체를 대상으로 의무 자조금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에 대의원 운영규정에 대한 질의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2개월이 흐르자 육계인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단체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까지 하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육계인 대회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관단체간의 의견불일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져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일 3개 축산단체장 및 자조금대의원장이 회동을 갖고 무슨 방법

을 동원하더라도 의무자조금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을 재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법 테두리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데 합의하면서 관리위원 위촉이 문제가 되고있는 만큼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서면결의 등)을 모색하여 풀어나가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미 FTA,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하면서 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자조금의 목적은 결코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육계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의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중계 DB구축사업 중요성 부각 부회장 및 백세미까지 연계 실시키로

중계 DB 구축사업이 본회에서 중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지 지난 6월로 1년이 지나고 있다. 양계산업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시작된 중계 DB사업은 2005년 4월에 본회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회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입력관리를 맡아 원종계 3사에서 분양하는 중계마리수와 도태실적을 주별로 파악하고 계군별로 입식에서 도태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중계장을 방문하여 사육현황 파악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1년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국내 중계는 254개 농장에서 558만9천수(산란 55만3천수, 육용 503만6천수)가 사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용중계에서는 2005년 6~11월 종란을 생산한 계군은 생존율이 84.2%이며, 2006년도 1/4분기 중계의 표준산란율(82.6%)과 실제산란율(68.6%)은 14.3%차이가 나타나 중계생산성이 좋지 않아 다수 중계장에서 병아리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품질이 낮은 육용실용 병아리가 분양됨으로써 육계사육 농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산란중계에서는 2005년 6~11월까지 입식된 중계는 22만8천수이며 산란율은 평균 83.7~91.9%를 보여 표준산란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하여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2007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급안정위원회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해오던 중계 DB사업에도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정부를 비롯해 관련단체 및 학계에서도 중계 DB구축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업이라는데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는 중계장만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회장과 백세미 등으로 확대하여 DB사업을 전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허술하게 다루어지던 백세미의 관리가 이루어져 질병예방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부회장의 경우 사전에 부회물량을 조절하여 원천적인 수수조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종계장 및 부화장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모두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철 개인 위생에 주의하자

파충류에 기생하는 유해균 감염 차단에도 노력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닭질병 뿐만아니라 양계장을 관리하는 농장주 및 관리인들의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도 등 청정지역을 배경으로 양계업을 경영하는 지역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더라도 반드시 끓여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을 돌면서 농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수의사들에 의하면 의외로 깨끗한 곳에서 음수를 하교난 이후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의 경우 뱀이나 개구리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들 몸속에 생존하는 유해 균들이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피서철을 맞이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아영객들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중 스파르가눔(Sparganum)이라는 유충이 이런 지역의 농장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파르가눔은 열식고충(裂殖孤蟲)이라고도 하며, 본래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나, 근래에는 뱀과 개구리 등 파충류에서 기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파르가눔은 백색이며 수 cm 길이에 2~3mm의 폭의 총체로 활발한 운동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의 몸에서는 성충이 되지 못하지만 몸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혹 같은 피부 결절(結節)을 일으키거나 고름주머니를 만들고 심할 때에는 음낭 속에 들어가 농양(膿瘍)을 일으켜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체내에서 발견되는 유충은 특히 안구근처, 흉곽, 복부, 대퇴부, 서혜부, 근육조직, 피하조직 및 흉곽내 장기에서도 발견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이 유충이 인체에서 발견된 예는 50~100명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뱀이나 개구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해 본다면 더 많은 사람의 몸 속에서 스파르가눔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감염되어 기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벼룩이 있는 계곡물을 먹었을 때에도 감염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에서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개구리 626마리를 잡아 스파르가눔 유충의 기생 실태를 조사한 바, 4%의 감염률을 보였다고 한다. 1마리의 유충이 발견된 개구리는 42.5%였고 5마리가 발견된 개구리도 12.5%나 되었다. 주로 개구리의 뒷다리에 많이 기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92.5%나 검출되면서 개구리를 먹을 때에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농장주 및 농장관리인들의 건강이 닭의 건강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양계**